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胡漢民氏國府에返電

[上海十九日發電通] 五全大會에서부터 國府主席을 ... 接한 胡漢民氏는 直時歸國途上에 ... 것다는 旨를 十九日附로 國民政府에 返電하여왓다

社說 色衣奬勵와 實行
當局의 眞意를 向함

一

色衣를 奬勵하기爲하야 各地方에서 거이强制的 手段을 쓰고 잇다는것은 累次 本紙의 報道한바며 本欄에서 論評한바다. 吾人도 그 理想과 趣旨에 잇서서 反對하는것은 아니오, 오히려 贊成하고 시픈 일이다. 그러나 實際事情에 맛지안는 緩慢는 그 動機가 如何함을 莫論하고 낫븐 結果를 맺기 쉬우며 甚하면 弊害가 생기고 만다. 보라 朝鮮에는 善不善을 不問하고 累百年間 白衣에 習慣되어잇다. 이것을 一朝一夕에 고치기는 어렵고, 또 設使 이觀念을 고친다 하드래도 染料가 高價로 되는 現下朝鮮에서 이것의 急速한 實施는 만흔 困難이 잇슬것이다. 시골마다 低廉한 染料를 쓰기때문에 그옷이 賤해뵈고 衣服감을 損傷하는것은누구나 目睹하는 事實이아닌가.

二

또 奬勵를 하드래도 白衣의 낫븐것을 말하고 色衣의 조흔 點을 말하야 自然히 이것을 좃게함은 조타. 그런데 往往히 地方事情을 보면 市場日가튼 때는 市場에 奬勵員이서서 白衣입은 이에게 墨汁을 끼언고 잡방을 치며, 甚한者는 婦女子의 內衣에까지 墨汁을 끼언는다. 이리하야 市場에서는 이것을 避하라는 사람과 이것을 쫏차가는 사람이 섞겨 一種 騷亂이 낫다한다. 어찌 이뿐이랴 奬勵員들은 儀禮準則에 喪人도 十四日밧게 喪服을 안입는다 하야 喪人에게 墨汁을 껴언즈며 家內에 侵入하야 婦人에게까지 墨汁을 던젓다는것은 順川서 생긴 事實이다. 喪中 服을 입는것은 朝鮮의 多年間의 習慣이오 設使 儀禮準則이 잇드래도 法律이 아닌以上 强要할 것이아니다.

이로써 어찌 法治國家의 이름을 듣을수잇슬가.

三

그中에도 더욱 關係한것은 이 人權蹂躪의 事實을 警察에 呼訴하드래도 地方警察은 아주 命令的뿐아니라, 도리혀 被害者가 色衣奬勵란 官廳의 命令을 服從치 안헛다 하야 責하는것이다. 奬勵는 奬勵요 人權侵害는 侵害가 아닌가. 더퍼노코 奬勵나 命令이오, 命令을 不服하면 어떤 迫害라도 無關하다 하는듯이 함은 實로 文明國家에는 잇슬수 업는 일이다.

吾人은 監督當局이 이러케 暴行을 하면서까지 强制하지 안흘것을 밋는다. 그러나 地方에서는 이러한 暴行이 公公然히 行하고 잇슴을 어찌하랴. 이것을 取締하지 안는다면 結局 當局의 默認하는것이 아니랴. 吾人은 거듭하야 말하거니와 奬勵와 命令은 全然 差異가 잇스며, 暴行은 法治國에서 容許할수업는 人權侵害라고 밋노니 監督當局은 이點에 對하야 特別한 監督이 잇서 今後 如斯한暴行이 업기를 主張하는바이다.

蔣氏抗日政策에 軍部、粉碎를決意
平和外交로부터積極工作에
日中關係俄然急迫
北中事態又復重大化!

[天津二十二日發聯合] 蔣介石氏의 二重政策에 關하야 日本當局은 左의 見解로서 이粉碎에 邁進할 決意를 굿게 하엿다 卽軍當局은 中國의 內政에關해서는 끗까지 不干涉의 立場을 堅持하고 時局을 靜觀하면서 中國側의 여러가지 宣傳과 國民黨의 排日滿工作에 對하야 隨時 中國側의 注意를 喚起해왓는데 今回의 北中自治樹立運動에 對해서는 그目的이 赤化를 防止하고 또 民衆의 自治로 明朗한 政權出現을 運動하고잇는 點에 多分의 期待를 두고 잇섯는데 今回 蔣介石氏가 모든 僞瞞政策으로서 事實의 遷延을 策하야 時局의 不安을 增大케 하는 一方 北中에 再次 軍事分會와如한 變態的機構를 만들려고하고잇서서 過般의 北中事件當時의 再現을 圖하고잇는點은 軍의 最大關心을 要하는바로서 梅津 何應欽協定을 無視함도 甚하다 蔣介石氏가 如斯한 行爲를 繼續하는以上 軍으로서는 從來의 態度를 一擲하고 獨自의 軍事外交의 對應策으로 邁進할 바게 업시되엇다

[天津二十二日發聯合] 有吉、蔣介石 會見으로 積極的으로 進捗되고잇든 北中自治機構樹立의 政治工作은 二十日을 契機로 一轉 排擊을 招來하엿는데 그主要原因은 北中事態의 局地的解決로부터 더 中心을 南京에 移動케하야 表面 有吉大使에게 懸案의 全面的 解決을 容認하야 安堵케하고 裏面에는 依然 僞裝親日로써 宋哲元氏等 北中要人에게 對하야 斷乎 日本과 抗爭하야 北中을 死守하라는 二十一日附密電을 發하야 蔣介石氏本來의 永久抗日을 强調하게되엇다 卽 蔣介石氏는 有吉大使의 外交交涉을 逆用하야 北中要人을 牽制하려고 한데 이密電에 自治要人은 오히려 此際에 確然히 南京政府와 손을끈코 旗幟를 明白히 하는것이 得策이라고 드디어 昨今 俄然 斷乎不動의 決意를 굿기한 模樣이며 日本駐中軍部도 蔣介石氏가 如斯한 對日交涉을 主張하고잇는以上 何應欽、梅津協定에 照하야 華北의 明朗化에 如何한 犧牲을 拂하더라도 斷乎 南京政府를 排擊하게된다는 重大決意를 示하야 所謂 軍部和平外交로부터 從來의 積極工作에 急轉하게되엇는모양으로 方今 北中에 暗雲이 低迷하야 이旬日內의 動向은 자못 重大視할바가잇다

現地駐屯軍은 萬全準備完了
迅速果敢行動豫想

[新京二十二日發電通] 蔣介石氏는 입으로 日中提携、北中不干涉主義를 唱道하면서 其實 河南、安徽、湖南、貴州의 各省에 잇는 中央軍二十萬의 大軍을 集結하야 北中將領의 去就를 牽制하고잇서서 全혀 北中民衆의 自力更生의 叫呼로 結成되려는 新事實을 無視하고 遺憾업시 僞裝親日의 假面을 暴露하야 자칫하면 抗日을 挑發하려는 態度를 明白히하게되엇스므로 北中駐屯軍과 關東軍當局에서는 陸軍中央部의 指令下에 停戰協定과 濟南條約에 基한 權益保持、居留民의 生命財産保護及 停戰地區內의 治安確保의 三大方針에 則하야 迅速果敢한 行動을 取하려고 萬全의 方策을 取할 準備를 完了하엿다

蔣氏提議應諾코 交涉開始를決定
今日四省協議會에서

[東京電話電通] 有吉、蔣介石會見으로 北中自治運動에 對한 國民政府當局의 方針이 大略 判明되게되엇스므로 外務省에서는 二十二日午前 重光次官 桑島東亞局長以下가 參集하야 幹部會를 開催하고 有吉大使의 報告를 基礎로 重要協議를 遂하고 日中關係의 全面的問題에 關한 協議를 繼續하야 桑島東亞局長主催下에 外務、大藏、陸軍、海軍四關係當局協議會를 開하야 對策을 協議하엿다 그리고 二十日의會談에서 蔣介石氏는 北中問題解決使法을 가젓다는 旨를 言明하고 또 日本對中三方針에對하야 協議開始를 提議하고 代表者를 北中에 派遣하야 日本當局과 協議하고십단 希望을 披瀝하엿슴으로 日本側도 一旦 이것을 應諾하고 交涉에 應할 方針을 決定하야 이旨를 有吉大使에게 訓電하기로되엇다

陳南京市長辭職
汪氏狙擊責任으로 後任엔王固磐氏

[上海二十二日發聯合] 陳南京首都警察廳長은 汪精衛氏의 狙擊事件責任을 感하고 政府當局에 辭表를 提出하엿다 後任은 現厦門市長兼 保安局長 王固磐氏로 內定하고 厦門市長에는 余前北平公安局長이 拔擢되엇다

有吉大使 南京發歸滬

[南京二十二日發電通] 蔣介石氏와 會見을 終了한 有吉大使는 二十二日午後五時 堀內有野兩書記官을 帶同하고 南京發列車로 上海에 歸還하엿다

松井武官 韓復榘氏와會見

[濟南二十二日發聯合] 張家口駐在武官松井中佐는 二十二日 飛行機로 濟南에 到着햇는데 二十二日午前十時 山東省政府主席 韓復榘氏를 訪問하고 時局問題에對하야 重要會談을 行하엿다

中央軍二十五萬 漸次北中을壓迫
形勢는刻一刻切迫

[新京二十二日發電通] 蔣介石氏는 南京政府가 全面的으로 否定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事實은 日復日 漸次 强力한 大部隊가 北中을 壓迫하고잇서서 如한 陣形으로 北上하고잇다 目下 中央軍의 兵力은 隴海線沿線에 十二萬 平漢線方面에 七萬 其他合하야 二十五、六萬이라고 推定된다

奉天取引所閉鎖
十二月末受渡後

[奉天二十二日發聯合] 奉天取引所閉鎖는 아마 十二月二十八日의 受渡로서 實現되리라고 確實視되는데 滿洲財界에 及하는 影響은 업슬것이라고 一般으로 樂觀하고 잇다

河北省中心으로 宋依然自治要望

[北平二十二日發聯合] 天津의宋哲元氏는 二十一日夜 自治派要人多數와 某所에서 會見하고 自治運動促成에 關하야 深更까지 重要協議를 遂하엿는데 同席上에서 宋氏는 『所期의 目的을 끗까지 貫徹하겟다』라고 堅固한 決意를 披瀝하엿다 그런데 이는 河北省을 中心으로한 自治政權樹立이오 구타여 他省首領의參加를 求할것업시 自己의 信念에 向하야 邁進하고 南京의 日中交涉에 對해서도 끗까지 自主的立場을 主張하려는것으로 觀測된다

中央西南合作
雙方利害의相互對立으로 依然樂觀不許

[南京二十二日發聯合] 五全大會를 機會로 西南派鄒魯氏等은 南京에 來着하엿고 더욱 實力派의巨頭 李宗仁氏等도 南京에오기로 決定한報道로 西南派와 中央의合作은 極히 圓滿히 進捗되고 表面에는 順調로 進行되는듯하나 最近에 이르러 西南派代表와 蔣介石氏一派의 軋轢이 生하야 兩派의 暗鬪는 漸次激化하게 되엇다 今明日中에 中央委員의 改選이 畢行될터인데 改選結果 如何에 依하여는 兩派今後의 合作에 一大龜裂이 生하지 안흘가 觀測된다 卽中央과 西南派와의 利害對立을 보면 左와如하다

一、五全大會 特히 十九日會議에서 蔣介石氏의 獨裁가 露骨的으로 暴露된것
二、中央이 財政窮乏을 理由로 西南派가 要求하는 財政的援助를 拒絶한것
三、日本에對한 蔣介石氏의 軟弱外交에 不滿하는것
四、西南派는 汪精衛氏等을 中央으로부터 驅逐하고 그代身胡漢民氏等 西南派要人을 國民政府 要路에配置하려는것이며 右提言에 蔣介石氏가 難色을 表示하고잇다

一事一言
長白山人

眞理人

오늘은 杜翁逝去二十五週年記念日이다。歐洲大戰以後 一時 杜翁의 이름은 잊처지는듯하엿스나 近年에 와서 다시 杜翁의 이름은 人類의 歷史에 가장 빛나는 가장 큰人物中의 하나대로 잇다

政治的偉人、藝術의 偉人等은 生前에 華麗함이 큰 代身에 死後에는 甚히 寂寞하다。그러나 眞理를 爲하야 차른 偉人、人類의 和平을 爲하야 차른 偉人、人은 生前에는 비록 寂寞하고 或은 飢寒의 苦、或은 逼迫의 苦、甚하면 흘리는 者、十字架의 苦를 當하더라도 그의 人格과 功績은 歲月이 갈사록 더욱 光彩를 發하는것이다。芳名을 靑史에 드리우는것은 그리 貴한 일이 아니라、芳名을 人類의 赤心에 색기는것이야말로 眞正한 不朽이다。

眞理—人道와 科學의 眞理야말로 不滅하는 人類의 財寶다。人道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란 말이다。그릇된 길 말고 바른 길、苦와 死로 떨어지는 길 말고 樂과 生으로 올라가는 길、個人의 眞正、久遠한 幸福과 人類의 眞正、久遠한 和平으로가는 길—이것이 人道니 人道야말로 사람이 要求하는 知識中에 가장 要緊하고 또 敎育貴賤、男女老少를 勿論하고 다 배호고 닥어야할 眞理이오 길이다。

그러나 眞理의 探求만해도 巧妙한 現世에서는 眞理의 宣布와 實踐은 어려운 일이어니와 眞理의 宣布와 實踐은 매양 十字架를 隨伴하는것이다。歷史에는 十字架를 진 眞理人이 數多하거니와 톨스토이도 이 十字架上의 人物中에 하나다。그는 敢然히 專制露帝國과 및 世界의、國家는 帝國主義、個人으로는 利己主義와 物慾自主義의 思潮에 對하야 예수의 絶對愛、無抵抗主義를 들고 挑戰하엿다。

그는 主觀的으로는 戰敗者엿다。그는 榮爵과 財産을 抛棄하여야될줄 알면서 못하고 마음내는 八十이 넘은 ... 無一物의 몸으로 客死함으로 이良心의 苦悶의 一部를 緩和하려 하엿다。그러나 그의 人格인 이 悲劇이 도로혀 우리의 同情을 끄는바 되거니와 그가 死의 瞬間까지 쉬지 안코 人道를 探求하고 實行하고 實踐하라는 熱烈한 精神이야말로 杜翁으로하여곰 杜翁이 되게한 所以다。그의 文學대위는 第二 第三義的 産物이다。

人類는 이제 眞人을 찾기에 눈뜨려하지 아니하는가。眞理를 爲하야 살고 죽는 사람이야말로 참말 우리가 崇拜할 참、偉人이다。朝鮮도 眞理人을 要求한다。

五全大會와◇◇◇ 南京政權의將來
⑧ 李元坤

◇財政狀態

中國財界는 昨年來美國의 銀政策實施以來 重大危局에 直面하야잇다 이危局은 農業恐慌의 深刻한發展과 大小金融業者의 倒産과 産業不振等의 諸現象으로 나타나고잇다 右諸現象은 相互關連下에 中國의 國民經濟를 새로운 危機로 誘導하는 同時에 國民政府의 財政的基礎를 動搖케하고잇다 이러한 中國農村의窮乏은 全人口의 八割을占領한 農民의 購買力을 減退케하야 必然的으로 外國貿易을 惡化케하고잇다 昨一九三四年度의狀態를 보면 輸入은 五億三千五百萬元 輸出은 十億二千九百萬元 差減 四億九千四百萬元이라는 入超數字를 示現하고잇는바 이것을 一九三三年에比하면 輸出額에잇서서는 一三%輸入額에잇서서는 二三%의 減少에 該當하므로 따라入超에 잇서서는 三五%의減少를 示現하고잇다 이와가튼 貿易의 萎縮은 必然的으로 中國의關稅收入을 惡化케하고잇다 그리하야 中國銀行調査에 依하면 一九三四年度의 國際收支는 金銀의 輸出額이 三億一千一百萬元 同密輸出額이 八千萬元 合計三億九千萬元으로되어잇다 이것을 一九三三年의 輸出額八千三百萬元 同密輸出額一億二千萬元 合計二億餘萬元에 比하면 一億九千萬元이 激增된 셈이며 今年에 잇서서는 此以上의 激增을 示現할것이다 以上 諸現象은 交互作用잇해서 中國財界를 收拾할수업는 危機로 誘導하고잇고 따라 中央財政의 危局은 餘地업시 深刻케하고잇다

이러한現局에 當面하여잇는 南京政府의 財政現狀을 一瞥키로하자 中央政府의 重要한 財源은 關稅 鹽稅 統稅 公債等으로 昨年度豫算에잇서서는 總歲入七億七千七百萬元中 關稅가 五二·二%、鹽稅가 二一·五七%를 示現하고 잇다 그리고 支出에잇서서는 軍事費와 債務支拂이 가장 主要한것으로 一九三四年度에 잇서서는 前者가 總歲出中 五〇·一四%를 後者가 二九·一八%를 占有하고 잇는데 兩者의 合計는 全歲出의 七九·三二% 實로八割을 각갑게占하고잇다 그리고今年度에잇서서는 前者가三九、六%後者가 三三%兩者會合計가 七二、六%로多少 減少되엿스나 依然 總歲出의 過半을 占有하고잇다 南京政府가 健全한 財源을 가지고 잇지못함에도不拘하고 이와가리 膨大한 非生産的費를 每年支出하게되는것은政情不安으로부터오는 中央軍閥의 鎭壓費와 討共費가 激增하기때문인데 現在의 經濟不況 産業不振 農民의 購買力激減等非常時局에잇서 民의負擔을 益益加重케하야 産業與民과 景氣恢復의重擔만 들고잇다 여기서 南京政府는 當面의 危局을 打開키爲하야 外國의 經濟的支援을 熱望하게 되다 그리하야 南京政府는 最初日本에對하야 日中親善을標榜하고 財政的支援을 要望하엿다 그러나 日本政府는 그 代償으로 滿洲國의承認 排日取締 赤化共同防衛等 中國에對해서는 承認하기 困難한條件을 提出하게되매 마츰내日本과의 經濟的 提携를 斷念하고 英國에支援을 要請한結果 드디여 레이드로스特使와의 協商이成立되여 英國支持下에幣制改革을 斷行하야 日中兩國間에 어즈러운波紋을 그리고 잇다。

◇

이러한 情勢下에서 南京政府는 農村救濟 討共事業 全國統一等 焦眉의急務를 解決하는問題가 山積하여잇슴에도 不拘하고 現下의 財政狀態로는 打開할方途가업서서 束手無策한 現狀으로 農村의 疲弊相과 都市商工業의 不振을 淡日深化의 一途를 過程할다름이다 如斯한 情勢下에잇서서 國民의 生活不安은 必然的으로 政情不安을誘致하야 反政府陣營에 活動根據를 提供하고 北方失業政客으로하여금 自治政權을 夢想케하는 機會를 供與하고잇다 비록南京政府가 六十萬의大軍과 機敏한政略으로써 中央의 威令이 미치지 못하는 貴州、四川 湖南等邊疆을 中央統制下에 歸締하야 國內泰平을 統一하기에 成功하고 한동안은 危急을 告하든 北中自治運動까지 挫折케하기에 成功하엿스나 그러나 이러한 非生産的財政現狀을 根本的으로 是正하야 民生方面과 國內建設에 萬全을 期하지안는限 압흐로 反中央運動과 自治政權運動이 再起하지 안흐리라고 누가 保證하랴 勿論 南京政府이라는가 强權統一이 急하자 안은것은 아니다 그러나 瀕死狀態에 直面하여 잇는 農村救濟와 産業振興과 景氣回復을 前提로하는 國內建設이 보담더 時急을 要하는 問題인것이다(終)

朝鮮軍司令官 同參謀長更迭

[東京電話電通] 來十二月의陸軍異動에서 朝鮮軍司令官及參謀長은 如左히 發令되게되엇다

朝鮮軍司令官 大將 植田謙吉
補軍事參議官
第五師團長 中將 小磯國昭
補朝鮮軍司令官
朝鮮軍參謀長 少將 大串敬吉
補〇〇〇司令官
熊本陸軍敎導學校長 同 佐枝義重
補朝鮮軍參謀長

夕刊後市況 廿二日

◆大阪短期 氣配◆
大新 一〇二二〇 (一〇過)
鐘新 一四八一〇 (不變)
日產 八二八〇 (不變)
東新 一七四六〇 (不變)
◆橫濱生糸 後引◆
當限 九一九〇〇 先限 八八七〇〇
◆福井人絹 後引◆
當限 六〇二〇 先限 六一一〇

埃及騷擾繼續 總罷市逐暴動化

[카이로二十一日發聯合] 學生團 威嚇은 마침내 暴動化하야 休業을 先鋒으로하는 카이로市民의 業을 不肯하는 店舖電車에 投石하고 警官隊와 衝突하게되엇다 首相나심파샤氏는 警官隊에게 示威團에 對하야는 發砲치안토록 命令하기때문에 警官의 活動이 不如意하야 右衝突로 警官七名이 負傷하고 一方 學生團五十名의 檢束者를내엿다

中央公論 十二月號 定價八十錢

支那の動亂
蔣介石・根岸佶・波多野乾一・村田孜郎
北支の烽火全支那政局の根幹を五裂の危機に導いて今や汪兆銘氏狙撃を高頂として世界の注視は一點に凝集さる!!この風雲の秋、蔣介石氏の時局に對する熱腸の批判、正に大根岸教授の時局に際會せる烈々の國民必讀の論策である

學藝刷新と大學の自由 森戶辰男
日本哲學の發達と現狀 三枝博音
經濟哲學は可能か? 杉村廣藏
資本主義の構造的變化 向坂逸郎
左團次自敍傳 市川左團次
退職手當の法律 片山哲
軍事豫算の檢討 鈴木茂三郎
書の話・岡麓
陶器雜感 富本憲吉
領臺五十年・野間五造
蘇峰先生・結城禮一郎
★陸海軍將星論 岩淵辰雄
藝術哲學の基礎 金子武藏
世界恐慌の克服 美濃部亮吉
外交戰と通信 天羽英二
冤罪と當局の責任 今村力三郎・高島米峰
西鄕南洲論 金剛山人
胎敎の迷信 安田德太郎
女とりとひ 宇野千代・吉屋信子・細川ちか子……
燈臺(詩)・金子光晴
この一年(繪と文)
病床日記 山本安英
酒杯漫語 水野廣德
犬の叡智 平岩米吉
樂壇人物月旦 鹽入龜輔
ボーナス武勇傳 阿部眞之助・中野實
北京印象記 正宗白鳥
勢威今や全し!!世界讀書界に冠絶する豪華版
●法律相談・末弘嚴太郎
●幕の景氣觀測・A・B・C
●街の人物評論……
新人傑作小說集
火藥 大鹿卓
血と血 外村繁
私生兒 高見順
血緣 大谷藤子
中亞巡閱隨想・松島肇
南洋祕話・多田榮藏
外交懷舊談・林董
ゲーテ新論・阿部次郎

一時間四十二分에 水墨色雲天翔破

三千餘群衆歡呼出本社機

裡里着陸場에安着

【裡里支局特電】본사에서 호남 독자들에게 보내는 오늘 석간을 가득히 실은 본사기 조선제일호는 오후二시 사십이분 무사히 리리(裡里)에 도착되었다 비행장에는 전주(全州)로부터 전북 보안과장(全北保安課長)이하 다수한 리리관민을 비롯하여 리리보통학교생도 이천명과 신문기자단등 삼천여명 관중이 모혀섯다。착륙과동시 리리대원장(裡里大院長)문치숙(文致淑)씨와 본사전주지국으로부터는 화환의 증정이 있은다음 간단한 환영회가 있었다 그리고 신(愼)비행사로부터 관중에게 대하여 비행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다음 석간은 바로 각지에 기차편으로 보내고 전주에는 리씨편으로운반되는데 각각그곳장 발행신문들보다 두시간내지 세시간이나 빨르게 배달되여 독자의 손에 바로 들게한다음 군중의환호 속에 오후 세시반 영산포(榮山浦)로 향하여 날었다。이번장거를 기회로 리리유민 들이 이에 리리에 비행장을 설치할필요가 있다는 소리가 자못높게되었다。

全州는택시로 連絡하야配達

【全州支局特電】본사 신문공수 비행은 예정과가치 이십이일오후二시사십분 리리(裡里)에 착륙하야 리리등 각지의 다수 인사의 환영가운데 이십삼분동안 주재가에 환영을받고 동시 이십오분에 광주(光州)로 향하였는데 본사 전주 지국에서는 자동차를 준비하야 즉시 전주읍으로 들어가서 배달을 부터 수송바든 본지의 배달을 시작하여 지방 신문보담 한시간가량빨르게 독자의손에 들어갓다

午後四時榮山浦着

【榮山浦支局特電】네시이십분무사히 영산포(榮山浦)에도착되여 각지에 신문발송을 마첫다

本報十年間의保管紙를 本社調査部에寄贈

自大正十三年至今年十月分

本社白川支局長趙冕植氏

본사 배천지국장조면식(白川支局長趙冕植)씨는 작이십일일 가 삼여년간을두고 하루가치 수집해온 본보보관지 대정십삼년십이월부터 금년시월까지 만 십년십개월분을 오로지 본사를 위하야 또는 지극한 정성이아니고는 될수업는 이위대한업적을 영원히 보존시키기 위하야 본사에 기증하야왓다 기증해온보관지는 대편하 경험뿐만아니라 십여년 이라는 장구한 동안에 양수된것은 누구나 할수업는일 이거니와 그밧게는 하루도빼지 안고 모다 수집되야잇서 씨의 수집가적 정신에는다경탄할만하다

본사에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관계로 전경영자시대의 보관지를 완비치못하고잇든터인데 이 계제에 조면식씨와 호의로 보관지를 완비식켜 씨의보사를 위하는정성과 조선에류드문 수집가적정신에는 오직감격할뿐이다 씨는

新聞蒐集은 圖書館을目的

신문을보내는날은딸을여이는감 趙冕植氏의苦心談

신문을 보내든날은 꼭딸을 시집을 보내는일이 아니엿습니다 우리가정에서는 딸을 시집이 나보내고 난것가튼 늣김이 잇섯습니다。아이들까지라도 신문이 결코 한사람으로되 라면 끔직한것으로압니다 말하자면 전가족의힘으로 모으겟습니다 대정십삼년십월부터 지국을 경영하기시작했는데 그날 이곳 나의신문수집을 시작 ……돈입니다 그러다가도 여던때는 호화장식을한서지면 일부러서 울라가서 구해왓습니다 하루가 가러 무관하에온두러니까 인제 백번이 되었습니다다그려 그런데도 으기시작한동긔는 도서관을 하나 맨들어는 계획이 잇섯든까닭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계획을 버린것은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조선일보사에다 보존하는것이 더조켓다고 생각되야서 이번에 본사로 보내는것입니다 운운」

◇사진은 조면식씨

道內一面一校制 明年度로서完成

廣州郡西部面外十二個面 普校設置를確定

향학열의 높아감을 딸아 일면 일교제(一面一校制)가 전부 완료 된다하여도 물밀듯하는학령아동을 모다수용할수가 업서입학난의 원책으로 간이(簡易)학교까지 설립하고잇는 이때에 경기도학무과 관내만도 아직 학교가업는면이 열두면이나되야 이런면의 아동들의 공부문제가 자못말성되던바 래년도즉 소화십일년도 까지에는 긔어히남어지 열두면전부에 사학년사학급제의 보통학교를 세워 일면일교제를 완료시키기로 되엇다는데 이번에새로 학교가 설치될면은 다음과갓다한다

廣州郡西部面 漣川郡郡南面 抱川郡蒼水面 加平郡南 面 楊平郡舟月面 水原郡日新面 水原郡雨汀面 水原郡儀旺面 始興郡北 面 金浦郡陽西面 坡州郡月籠面 開豊郡嶺南面 以上十二面

押送中의犯人 小刀로自刎

주재소로부터 본서로 압송중에 단도로 목을찔러 자살을 꾀한절도혐의자가 잇다 지난이십일오후한시경 경기도 룡인군외사면백암리(龍仁郡外四面白岩里)삼백구십일번지 황극선(黃克選)의 호떡집에서 현금칠원도난사건이 발생하야 소관룡인경찰서외사면 주재소에서 범인을찾든중 유력한혐의자로 그군 원삼면고당리(遠三面高塘里)발동긔선 운전수 권태진(權泰辰)(二〇)을 데려다가 대개 취조를마친후 이날 오후

弊端만흔正租檢査 駭怪·個人에委任

穀物檢査群山支所長項出張所의處事

農林局도失色、回收를電命

정조검사(正租檢査)실시후 각지방에서 여러가지 폐해가 잇슴은 각지국 통신에의하야 자조 보도된바와 갓거니와 곡물검사소군산지소장항출장소(穀物檢査所群山支所長項出張所)에서는 검사취체위임증(檢査取締委任證)이라는것을 민간개인에게 주고그 위임증을 바든사람이 관리와가튼 행세를하야 서천군서천면군사리(舒川郡舒川面郡司里)에서는 이것이 큰문제가되어 관규문란(官規紊亂)이라하야 총독부에이 사실을 보고한사람이잇서 곡물검사소와 농산과에서는 놀래어 지급히 이런사실이잇고업는것을 조사하얏든바 이것이 사실인것이 판명되엇음으로 석춘(石春)검사소장은 장항출장소에 위임을 취소하라고 전보로 명령하는동시 다른 지방에도 이런일이 잇슬가 염려하야 각지의 지소와 출장소에 대하야 검사를 위임하는것은 그 리유가 어떠함을 불문하고법규상허락지안는일이라고 공문으로 통첩을 발송하얏다 한다

徹底히取締 山澤農產課長談

새제도가 실시된 때문에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잇슴을 유감으로 알어오든터에 장항출장소에서 개인에게 검사를 위임한 일이 잇다는 말을 듯단 깜짝놀랏습니다 이런일은 편이상 한 일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묵과할수 업는 일로 법규상 허락지 안는 일로 이런일 뿐아니라 이와 비슷한 일이라도 잇지 안토록 철저히 취체하겟습니다

至急電話抽籤

금년도의 전화지급개통신청수는 예정수를 초과햇스므로 오는이십삼일 오전열시부터 중앙전화국(中央電話局)에서 공직자와 신문통신관계자의 입회알에 추첨을하리라한다 신청자에게도 참관을 허락하리라한다

氣象特報

(二十二日午後八時 仁川觀測所發表) 高氣壓에因한 季節風이强하리라 氣溫이急降하리라 慶南北、咸南北、黃海와京畿道沿岸을 警戒한다

〝曖昧한洞會事務所 料理점시만出入〟

會計不明한町洞會經濟와 西大門署에怪投書

소위 정동자치(町洞自治)라는 간판을걸고 시내각정동에생긴 동회(洞會)는 동리주민들에게서 매월칠십전이상 내지 일원가가히의 회비를거두어서 경영의비용과 기타비용을 써가는터인데 이제이것을 노코 한문제거리가생기어 시민의관심을 끌고잇다 현재 경성부내일백팔십육개정동중에는 오십팔개소의동회가잇고 거기에참례한곳이 칠십이개정동인데 이것은 일부동회역원들만이 사무를보아나갈뿐이오 일반동민은 회합할때에도 잘모이지아니하야 회계일반도 형식상보고에그치고 일반은 잘맡지못하는것인데 이제이것을긔회로 애매한경비의지출이 잇다는 루서가 파문(波紋)을 그엇다 이상일전에 시내 서대문서에는 모동회에서는 별로하는일도업시 밤낫으로 청료리점시와 술먹의 출입이자즈니 가난한사람의돈을 십전 이십전모아가지고 겨우하는일이 이것이며 또는 교화(敎化)운동이니 무엇이니하면서 기것이울곳이냥이 나고 조리닷는리른으로 오음바는루서를하고 맨끄레가서는 그 동회에가서 장부(帳簿)를 좀보여달래도 동회가정에는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보여준다고해놓고도 불구하고 말하니 좀신속해달라고하야 동서에서는 그동회에 엄중한주의를 주엇다한다 근자 동회가 잘 늘어감을따라 때로는 그와가튼 맹낭한곳도더러잇는모양인바 이에대하야 그 가족들인 경성부내무과의말을 들으면 내무과에서 사무상관계로취하나 그것이 각각자체인 마당 회계사무를 경영로 동회에서도 ……업다고하야 ……

被告審理完了 求刑은廿五日

新建設社事件公判

【全州支局特電】신건설사 사건(新建設社事件)의 공판은 오늘로서 이십삼인의 심리를 모다 마치고 다음공판은 이십오일에열기로하고 폐정햇는데 그날에는 구형과및 변호사들의 변론들이 잇스리라한다

若林製絲에火災 損害約二千圓

【光州】이십일오전二시 삼십분경에 부내 림정약림 제사공장(若林製絲工場)에서 불이낫는데 손해액이 약이천원이며 원인은 무전이분하다고한다

音樂一夕講演 今日午後三時에

부내화동(花洞)에 잇는 조선음악연구회(朝鮮音樂硏究會)에서는 오는 이십삼일오후세시부터 인사동(仁寺洞)태화녀자관(泰和女子館)안에서 제삼회 정긔공개강연회를 연다는데 연사는 김영(金□)씨 연제는「조선음악과 스페인음악의비교」라한다

모-단自殺法

진기하고 새로운자살방법 ─ 부외 룡강면동막상리(龍江面東幕上里) 이백이번지 박명호(朴明浩)의아우 명석(明錫)(二〇)은 지난이십일일 오후두시쯤되어 자살할뜻을품고 동막하리(東幕下里)에잇는 로고산(老姑山)이란 솔밭속에드러가서 그곳에세워잇는 노피삼천볼자가량되는 고압선(高壓線)에올라가 몸을대는동시로 타죽엇는데 원인은 생활곤난으로 인한 염세자살인듯하다고

阿片쟁이가 注射로殺人

仁川牛角里서

【仁川】시내우각리(牛角里)사십오번지 엿장사김세옹(金世雍)(?)은 「모히」중독자로 지난이십일일 오후여시경 그주인김현수(金顯洙)(?)가 리착이 배가압흐다함으로 그를 지청시키고자 「모루히네」주사를 두번이나하얏든바 마츰내 이십이일오전한시경에 마츰내절명되여 경찰에게 포되엇다한다

昨夜橋南洞서 貨物車殺人

이십이일밤 부내 교남동(橋南洞)칠십사번지 압헤서 이십칠팔세 가량 되어 보이는 로동자 한명이 그때마츰 서대문쪽으로 운전수 김관태(金寬泰)(?)가운전하야 진행하든 시내 종로오정목 일백사십번지 천일주조장(天一酒造場)화물자동차에 바치여 인사불성에 이른것을 적십자병원으로 데려다가 응급치료를 시작켜보앗스나 그만죽어버렷다 죽은 사람의 주소성명은 알길이 업다한다 원인은 자동차가 진행하든 압길을 피해자가 별안간에 가로건느려다가부다치게된것이라한다

大連깽 容疑者逮捕

方今取調中

【大連二十二日發聯合】은행깽 용의자로 이십이일 오전열시쯤 되여 나이 설흔살가량의 『로이드』안경을쓰고 풍속에 검정빗과 휘마스크부개를 가지고잇는 양복쟁이가 료동(遼東)『호텔』압헤서 빈자동차를 찻고잇는것을 대련서(大連署)원이 발견하고 붓잡엇는데이사나이는이견(二見)이란말이상당하옵다한다

興味에끌 女子籠球戰

今廿三日午後二時半 梨專體育館서

스포-츠여성의 약동미를자랑하는농구경기! 리화여자전문(梨花女專)주최와 본사후원의 제이회 전조선중등여자농구대회는 마침내 금이십삼일오후두시반부터 새로히지은 시외리화전문체육관에서 열리게되엿다 출장학교의 각진용을본다면 작년의우승교 배화여고(培花女高)가 련패(連覇)를목표로 의기양양하야잇스며 멀리지방에서 처음으로출전한 함흥영생여고(咸興永生女高)、선천보성여교(宣川保聖女校)、개성호수돈여고(開城好壽敦女高)등의세학교와 경성의 리화여고(梨花女高)등이 갑을(甲乙)을가릴수업는 자신과강미를가지고 출진하엿스니 승패의귀착(歸着)는 헤아리기어려운바이다 더욱히 싸홈이열리는당일에 조마조마하는 가삼을안고 응원가를 노피부르는 모교응원단의 격려에마추어 전세가일진일퇴하는때마다 선수들의희비(喜悲)의극적장면을 그얼마나비저내일것인가? 만도의시선과인기는 오로지 이대회에로 집중되고잇다 이날은 결승전이 시작되기전에 금상첨화로 리전청홍(梨專靑紅)량군의 모범경기를행하기로되엿다

★寫眞은 上列로부터 梨專、培花、永生、保聖、好壽敦、梨花女高의 陣容!!

◇大會任員

▲會長 아펜셀라 ▲副會長金活蘭 ▲委員長金信實 ▲本部委員 徐恩淑、金尙鎔、金洪楨、張權、高鳳梧 ▲審判及記錄時計委員 田成鎬、李性求、金化泳、孫禎俊、林東洙、金振秀、李建春 ▲接待委員 張起元、朴慶浩、崔禮順、李春子、金甲順、崔貞順、崔仝、林命順

▲出場校陣容

◇培花女高⋯朴仁昌(監督)金希連、文昌德、吳丁順、李秉洙、李鳳淑、韓昌順、文信愛、朴慶順、金仁寶、韓乙允

◇梨花女高⋯徐明學(監督)金瑞利、金寶石、崔窮涉、洪光恩、文今分、河貞愛、朴花子、羅貞婉、盧仁信、許福烈

◇開城好壽敦女高⋯韓榮根(監督)金仁順、金貞玉、馬金鳳、李京順、金道順、金鳳姬、姜道淑、金今順、王宗淑

◇咸興永生女高⋯宋利玉(監督)文吉南、姜良文、金貞男、盧貴鳳、洪錦禧、朱俊君、朴國姬

◇宣川保聖女校⋯梁在動(監督)安毅順、朱永善、金順福、金貞烈、金信玉、張淑惠、文錫道

中學、靑年部 籠球聯盟戰第十三日

激戰!또激戰끄테 養正、靑學을이겨

中學第二部엔京實優勝

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 第九回籠球聯盟戰第十三日은 二十二日午後六時四十分부터 鐘路靑年會館體育館에서 열린바 이날第一次戰의 中學第一部養正對靑學戰은 前半戰에 靑學優勢를 보이드니 後半에 드러가 養正軍에게 逆轉되여 惜敗하니 養正軍六戰五勝一敗로 戰率八割三分三厘로 徽文軍과함께 第一位에 列하야잇스며 第二次戰中學部第二部의 首位爭戰인 京實對普成戰은 兩軍熱戰끄테 京實軍四十九對三十으로 强豪普成을이겨서 第二部에서三戰三勝의 全勝率로 優勝하엿다 그리고 靑年部의K籠對法專戰은 K籠軍이 法專軍을始終壓倒하야 K籠軍勝捷하엿스며 普專對世專戰은普專軍快勝하야 延專과함께 全勝率을 保持하고잇다

養正36 (20 16 … 5 17) 22 靑學

中學第一部=養正對靑學戰은 同日午後六時五十分부터 金化泳、李惠澤兩氏審判알에開始되바 結局三十六對二十二로養正勝

【養正】	前	後	反
F 申宗淳	4	6	0
F 鄭度燮	3	3	0
C 張聖壽	4	6	2
G 方元淳	4	4	1
G 韓世一	1	1	2
	16	20	5

【靑學】	前	後	反
F 徐廷釗	2	3	2
F 兪仁濬	3	4	1
C 權重潾	0	7	0
G 金俊泰	2	0	0
G 李應彬	0	0	0
G 李余燮	4	3	2
	11	17	5

京實49 (23 26 … 19 11) 30 普成

中學第二部=普成對京實首位爭奪戰은 同日午後七時四十五分부터 張權、孫禎俊兩氏審判으로開始되바 結局四十九對三十으로京實勝

【普成】	前	後	反
F 元錦植	4	6	0
F 嚴英燮	0	3	2
C 玄錫璡	5	4	2
G 安潢燮	2	2	4
G 李希行	0	0	0
G 洪龍均	0	4	0
	11	19	8

【京實】	前	後	反
F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F 金宇鎭	3	0	0
C 裵哲鎭	0	8	14
G 金逸濟	0	6	0
G 朴聖基	1	0	1
	5	26	23

K籠43 (28 15 … 11 6) 17 法專

靑年部=法專對K籠戰은 同日午後八時四十二分부터 宋基學、李惠澤兩氏審判으로開始된바 結局四十三對十七로 K籠大勝

【K籠】	前	後	反
F 金鎭動	4	6	0
F 韓秋午	6	4	3
C 南基鏞	2	3	0
G 金鳳官	3	5	2
G 李良源	0	1	01
	15	28	6

【法專】	前	後	反
F 李 炫	1	1	8
F 韓成澤	1	3	0
C 趙秋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G 趙彰熙	0	0	1
G 金潤洙	0	0	0
	4	6	11

普專49 (22 27 … 20 9) 29 世專

靑年部=普專對世專戰은 同日午後九時半부터 李惠澤、張權兩氏審判으로開戰되여 結局四十九對二十九로 普專大勝

【世專】	前	後	反
F 宋彥相	2	9	0
F 尹貞相	2	3	0
C 李德鎬	4	0	1
G 韓文奎	1	2	2
G 南命鎬	0	6	2
	9	20	5

【普專】	前	後	反
F 洪憲錫	1	3	0
F 鄭正武	0	4	10
F 崔海龍	1	10	0
C 金致雲	0	4	0
C 金炯烈	2	0	4
G 辛在鶴	0	3	0
G 宋在明	1	0	4
G 李文錫	0	4	0
G 金善□	2	0	4
	7	27	22

對延專籠球 普專先勝

熱戰!單一點差로

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 朝鮮豫選戰第三日은 二十二日午後三時 四十五分부터 鐘路靑年會館코-트에서 普專對延專 第一回戰이 盧崎、崔浩鎭兩氏審判으로 開始되바 이날의게임은 우리學園籠球界에잇서白眉의 一戰이지라 劈頭부터 極度로 緊張하야 普專 二分에 崔海龍君의 最初得點이 잇슨後 同五分에 延專 廉殷鉉君의 長投成功으로 同點、이로부터 兩軍 莫上莫下의 激戰을演하며 二十三對十八로 前半은延專『리-드』로 後半戰에 드러가 普專挽回에 全力을 다하야 奮鬪하니二十四對二十四로 同點된後、連다라四次나同點되엇다가 普專辛在鶴君의自由投로 一點을넘어 普專이勝利하엿다

【延專】	前	後	反
F 孫俊傑	0	0	0
F 李萬興	0	0	0
F 金應福	5	2	1
F 李王求	0	1	1
C 廉殷鉉	13	10	0
G 洪吉文	2	3	2
G 張利鎭	4	4	2
	23	20	6

【普專】	前	後	反
F 申光浩	3	4	9
F 洪憲錫	0	0	0
F 崔海龍	0	2	6
C 金致雲	3	10	9
G 辛在鶴	3	2	2
G 李文錫	2	0	0
	11	18	26

第13日戰率

【中學第一部】

順位		試	勝	敗	率
1	徽文	6	5	1	0.833
1	養正	6	5	1	0.833
2	儆新	6	4	2	0.667
3	中東	5	3	2	0.600
4	靑學	6	3	3	0.500
5	一高	5	2	3	0.400
6	道商	5	0	5	0.000
6	協成	5	0	5	0.000

【中學第二部】

順位		試	勝	敗	率
1	京實	3	3	0	1.000
2	普成	3	2	1	0.666
2	培材	2	0	2	0.000
2	中央	2	0	2	0.000

【靑年部】

順位		試	勝	敗	率
1	延專	5	5	0	1.000
1	普專	4	4	0	1.000
2	高麗	5	4	1	0.800
3	K籠	6	2	4	0.333
4	法專	5	1	4	0.200
4	三角	5	1	4	0.200
5	世專	6	1	5	0.167
	鐵友 수리		棄 棄		權 權

京醫專連勝

對廣島高工蹴球

日本遠征中의 京城醫專蹴球部는 第一戰에 廣島高校를 擊破한後 翌二十日에는 廣島高工과 對戰한바 四對一로 京醫專快勝하엿다

今日의運動

▲女子籠球大會=梨花女專主催第二回全朝鮮女子中等學校籠球選手權大會 午後二時半 梨專體育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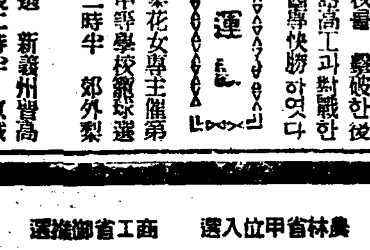
▲럭비=中等校豫選 新義州高普對京城商業 午後二時半 京城運動場

▲卓球=第八回實業團對學生聯盟對抗卓球大會 午前十時 本町明治製菓三層

▲柔道=朝鮮硏武館 級試合 午後七時 壽松洞硏武館

▲籠球聯盟第十四日=儆新對中東(午後六時半) 一高對道商(同七時二十分) 普專對延專(同八時十分) 三角對法專(同九時)鐘路靑年會體育館

農林省甲位入選 商工省御推選



二馬力 二馬力半 三馬力半 四馬力半 六馬力 八馬力 十馬力 十二馬力

生產能率 月產四百臺

釜山府大倉町一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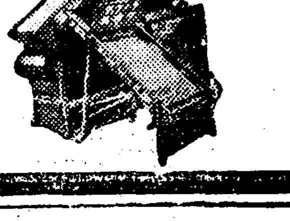
鮮滿配給元 土肥發動機釜山出張所

代表者 熊野清一 電話(長)一一二六 振替釜山一六九九番

本店 日本岡山驛前 工場 岡山市東古松

スピー 米撰機

新七號揺落シ 六號A型唐箕付六號B型唐箕付 二十號A型六吋ロール 廿號特型六吋ロール 廿年同別型七吋ロール 新ヘビー七號揺落シ(七吋ロール付)



ダイハツ號 小型三輪車

HS5(500cc エンヂン付)五力馬
HS6(670cc エンヂン付)六馬力3/4
HS7(750cc エンヂン付)七馬力半

ダイハツ重油機關

發動機界의王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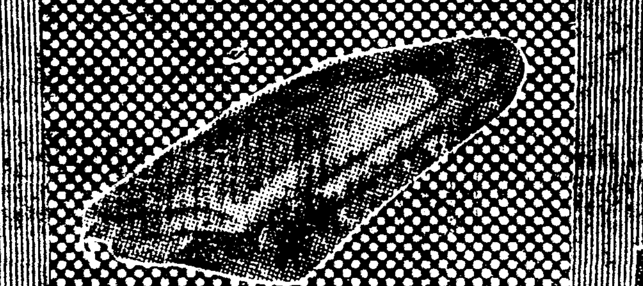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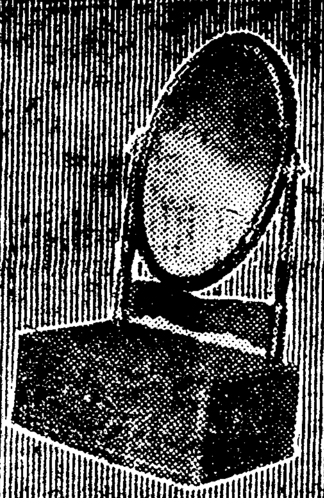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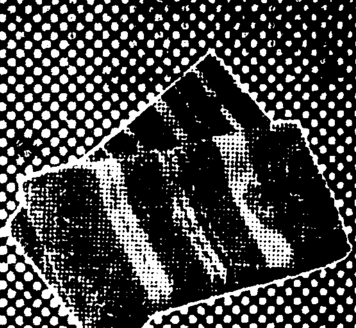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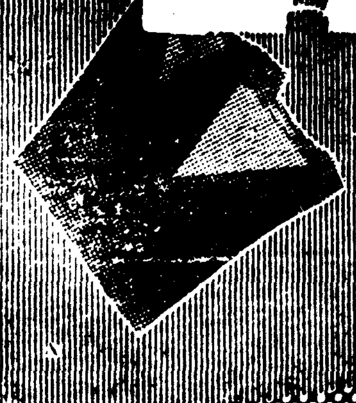
型式	常用馬力 キロワツト	常用馬力 馬力
OH-5c	5	6.70
OH-7c	7	9.38
OH-9c	9	12.06
OH-12c	12	1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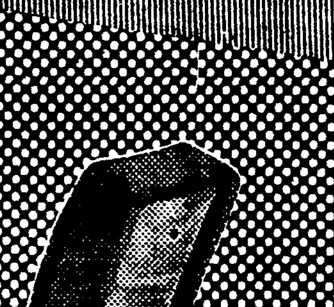
發動機製造株式會社製品

南鮮一手販賣店

御販賣店各位
御參加御申込を
懸賞大賣出しに際し熱誠なる御援助御協力を懇願致します。レートクレームお買

이런 大賞品을 뽑어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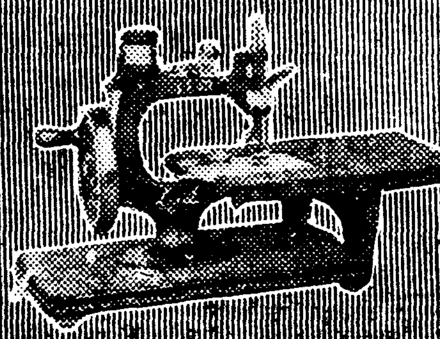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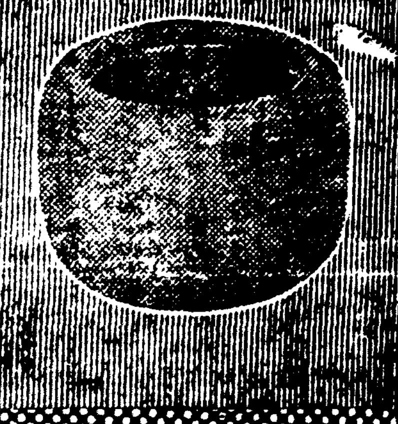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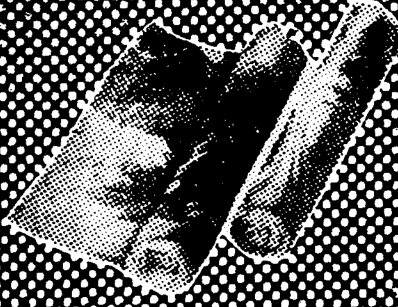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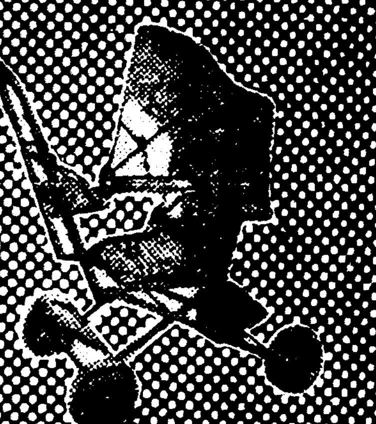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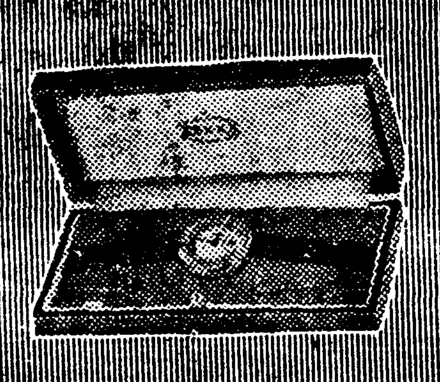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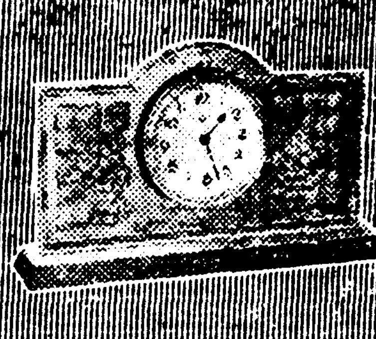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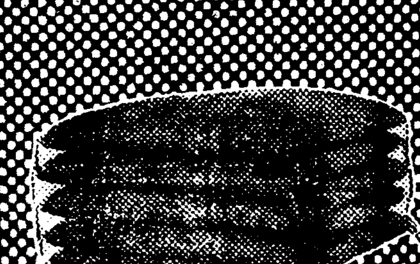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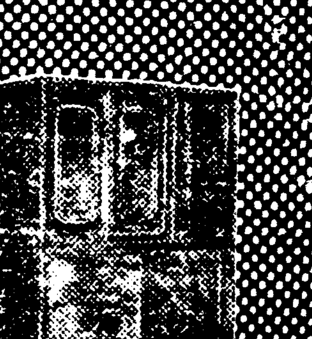







人氣白熱！全國沸騰！

二百万名様 總當り大懸賞

愛用者에 特製景品大贈呈

懸賞課題

것칠지안케、볏에안껌게하며、본살바탕의美를增進케하야化粧의基礎를맨드는東洋第一品의○○クレーム를아십닛가

？

答案用紙와 쓰는法

レートクレーム의空函을그대로 피여서裏面白地에 左의順序대로 記入하시오

一、○○○クレーム
二、特別賞品中希望品一點
三、住所氏名

近處의レート化粧料販賣店에 갓다주시오

愛用하시는 여러분의 便宜를 圖謀하야 販賣店은 答案을 다모와서 本舖에 送付함으로 郵稅가안듬니다。

萬一本舖에直接郵送할時는 十五瓦(約四匁)까지三錢切手를 貼付하여주시옵。郵稅不足한것은 謝絶不受합니다。

答案은 한분이 몃장이라도 조흐니 만히보내시면 當籤率도만허집니다。

(懸賞募集에 關한 問議는 一切拒絶하야 드리지안사오니 諒解하시시요。)

●締切 昭和十一年二月末日
●發表 同年三月末日新聞紙上

東京小間物化粧品商報社에서同社員立會下嚴正抽籤으로下記賞品을贈呈

○ツバメ賞(特別賞) 五〇〇名様
特製茶簞笥 壹個
羽二重掛蒲團 壹枚
特製新型パラソル 壹本
寶石入帶止 壹個
婦人用新型腕時計 壹個
旅行用双眼鏡 壹個

○富士賞(特別賞) 五〇〇名様
眞珠入金指輪 壹個
携帶用ミシン 壹臺
特製羽二重片側帶 壹本
銘仙座蒲團 壹組
總桐胴火鉢 壹個
少年用自轉車 壹臺

○さくら賞(特別賞) 五〇〇名様
姬鏡臺(化粧具セット付) 壹臺
レート特選御召 壹反
高級置時計 壹個
折疊式乳母車 壹臺
婦人用レインコート 壹着
晴雨兼用洋傘 壹本

(ツバメ賞、富士賞、櫻賞中에서조와하신一點을選擇해주시오)

レート賞 一、〇〇〇名様 レート化粧料詰合函 壹個
お奨め賞 一〇〇、〇〇〇名様 旅行型レート粉白粉 壹個
愛用賞 三、〇〇〇、〇〇〇名様 流線型お化粧カード 壹組
(但愛用賞은買上時無代進呈)

憧憬의 若肌！ 魅力의 柔肌를 創造하는 東洋第一品！

レートクレーム

레도크림

レート化粧料本舖 東京市日本橋區馬喰町一丁目 平尾贊平商店

大田의要望 (二)

高普設置보다도 火急한普校增設

私立校가全無하야緩和도不能

特派員 金[illegible]伊

대전에는 옛대를 두고 사려내려오는 소위 토호(土豪)라할집이 업다 한다 이것은 신흥도시인때문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지방 시민은 대개 다른도에서나 또는 도내의 다른 군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원적은 종래와가티 군부에 두고 장사를하며 사업을 하기 위하야대전에 거주하는상태이다 그러므로그들이 과연 대전을 자긔네의향토로서 중요한 애착심을 가젓는가하면 매우 의심되는 점이 만타 공원하나가업고 사립학교하나가 업을뿐아니라 공회당하나가 업다 그러나 모든 시설이 변변치 못하다하야 대전이라는 사회가 아주보잘것업스며 또 대전이라는 도시가 아주보잘만시설이 업는가하면 결단코그런것은 아니다 다른 도시에 비하야 특히신흥도시에 비하야 여러가지 손색이 만타는것이다 다른 신흥도시는 대개 개항장으로서 발전을하야오고 지리적으로도 큰하천의 하류에 잇서 해항(海港)또는 하항(河港)으로서 발달을하여 시가가 번성하고 상업경제의 발달도 비약적진전을 한것이 사실이되 신흥도시중에서 유독 대전만은 도시의 중요한 조건인 큰강이 업스며 도 군산(群山)과 목포(木浦)가 너무멀리 떠러저잇기 때문에 순전한 내륙(內陸)도시이다

그런데 이와가튼 상태에잇는 대전이라는 도시의 사회의 발전상 여러가지 문제에대하야대전시향은 어떠케생각하고 무엇을 요망하고잇는나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라할 교육긔관에대한 즉교육문제로부터 살펴보기로하자 대전에는 보통학교가 두학교 유치원이 하나잇다 두보통학교의 아동현재수는 한일천팔백팔십여명인데 매년 모집인원은 는백오십명에 불과하나 지원사이 륙백여명으로 절반도 수용을못한다고한다 사립초등학교가 하나도 업슴으로 입학을 지원하엿다가 입학이 못된 아동은 아주 구식인 서당에서 약간의 한문자를 배호면서 보통학교입학시험준비를 하여야될 긔현상이다 올흔 조선내의 초등학교입학난은 어느도시나 적실한것은 사실이지만 대전에는 사립학교가업기때문에 이러한 입학난의 일시적 완화라도 할수업기때문에 중산계급이하의 자제는배홈내야 배홀수업는 현상이다 전조선인의 경제력이 약하고도는 사립학교라도 장래경영할 지가업스면 도에서라도 보통교하나쯤을 더세우며 이미잇는 학교의 학급이라도 증설하야급선무임은 물론이다 대전지만은 남녀고등보통학교의 설립을 우 요망한다고한다 물론남녀중등학교의 설립도 긴급한 문제이것지만 매년삼, 사백명씩보통학교에 못드러가는 아동이 잇다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중학교부터 세우기만하면 인민의긔초교육인 초등교육문제를 어떠케할작정인가 중등교설립을 요망할만한계급은 아동을 타곳으로 내어보내서라도 공부식힐만이잇것지만 굶수려 가면서라도 초등교육이나마 바드려는 중산계급이하의 자제교육문제에 대하야 당국자나 또는 일반인사의 생각이 부족하는것가티 늣기는것은 유감이다

또 중등교육긔관으로는 공립중학교와 고등녀학교가잇서 각기매년 조선학생이 오륙명 내지열명가량입학을한다 이외에 상업보습학교와 공립직수학교가잇서 완전한 공학(共學)을 하고잇스나, 중등교육긔관은 사실은 초등학교이상 빈약하다 공주(公州)고등보통학교가잇스나 거리가멀고 교통이 불편하야서 학생이용할수가업다 그럼으로 대전유지들과 도당국자도 여자고보와남자고보를 대전에 설립하려고 상당한 바와가터 힘써오나 초등교육상태가 아주빈약한 현상에비하야 관계하야 실현되리라고믿기어렵게되엿다

대전사회에잇서 조선사람이산업경제상 충분히 발전을 할도리를 강구하는것도 필요하지만그이상 교육긔관의 긴급한확충이 절대로 필요하다고할수잇다

籾檢査徹底를圖코자 指定仲介組組織慫慂

◇…群山米穀檢査支所에서 各精米業者는反對表明

【群山】 벼(籾)의 강제검사로인하야 일반생산자로부터 원성이 자자함은 무론 일반정미업까지도 불평의관연이 되야잇슴에도 불구하고 군산미곡검사지소에서는 벼검사의 만전을 도모하기위하야 군산에산재하야잇는 사십여개소의 미곡위탁업자들을 통일하는 의미로 지정중개업조합(指定仲介業組合)의 조직을 종용(慫慂)하는 동시에 군산의사대 정미소인 가등(加藤) 조선(朝鮮) 장전(長田) 화강(花岡)등 각 정미소에 대하야 금후 벼를 사드릴시 에는 반드시 전긔지정중개업조합을 통하야 사드리란는동시에 동정신에 립각(立脚)하야 량방이 계약까지체결하라하얏다한다 그런데 군산미곡검사소에서 전긔와 가티 지정중개업조합소직을 종용하는 동시 각정미소의 벼매입에까지 전제하는것은 군산항에반입되는 벼를 결국전긔지정중개업조합을 통하야서만 매매가되는동시 벼의검사는 자연완전을 도모하야질것임으로서이라한다 그러나전긔정미업자간에 동문제에 대하야 여러가지로 토의를한바 사는사람의립장으로서 그런구속되는 계약까지를 할필료가업다하고 반대의 뜻을 표함으로 그의 장래진전이 가장주목된다고한다

하야 관내의 인저장고(籾貯藏庫)를 리용하야 보리를 담보로 저리자금을 융통시험코자 금년도산 보리 약이천석을 저장융통하얏다가 과반 전부처분을한바 그간의 금리급 모든비용을 제하고서도 매석에 삼원여의 리익이 잇섯슴으로 금후 군당국에서는 보리 저장에 대하야 적극적으로 장려할방침이라한다

科料五圓물어 밀로풀수고

【淸州】 청주군사주면북대리(淸州郡四州面北大里)최용준(崔用俊)의처 류씨(柳氏)는 금년딸상순경 평소가난한탓으로 밀(小麥)을빼서 풀(糊)을만들고 그무거리(粕)를남겨두엇다가 마침청주세무서원에게 발각되야 곡자밀조(麯子密造)라는 명목으로과료(科料)오원의 처분을 바덧든데 전긔류씨는 긔가막혀서 동분서주하야 전긔과료 오원을변통하야 가지고 지난십팔일 청주 검사국에 출두하야 원통한 사정을 애원하엿다한다

平壤府營電車 通行老人轢殺

【平壤】 이십일오후두시경 팔천대정(八千代町)전차정류장 부근에서 운전수 고호정(高浩貞)이 조종해가지고 올나오든 일백이호전차가 맛츰통행중이든 주소성명도 알수업는 로인과 충돌하야 즉사케하엿다한다

女性運動에盡瘁한 安珍球孃歸國

【統營】 지난십칠일 오후칠시반부터 대회정 장노교회당에서장노교회의 주최로 안진주(安珍珠) 선교사의 전별회가 성대히 거행되엿는데 안진주 씨는 호주(濠州)출생의 녀성으로서 젊문청춘이십세 내외의 아름다운 몸으로 조선에건너와서 부산과 통영에 재주한지 이십사개년간을 오직긔독교를위하야 반청춘을 조선에서 보내엿다 현직으로는 장노교경남 녀자성경학교교장으로서 오직긔독녀성의문화개발운동에 이십사개년을 밧치여 조선녀성에게 만흔 공노가 잇는선교사인데 금번제사회의안식을당하야 호주본국으로 도라가게한다

少女殺害犯 犯行自白送局

【大田】 대전춘일정 삼정목 십팔번지에 거주하는 정영근(鄭榮根)(一七)는 금년에 다섯살 바게 되지 아니한 소녀에게 변래적수욕을 채우고 살해까지하야 당지경찰에 체포되여 엄중한 취조를밧는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자는 범죄사실를 자백하엿슴으로 지난 십륙일 일건서류와함께 살인 강간 사체유기 세가지죄명으로 대전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한다

慶北道內의乞人群 年復年으로激增

比昨年現在五百餘名의增加로 勿驚! 七千餘名突破

【大邱】 경북(慶北)안에서 잇서 우리사람으로써 살길이 업서조석으로 집집마다 류리걸식(乞食)하는 비절참절한 걸인이 십월일일 현재로 칠천오백구십사명이라는데 작년에 비교하야보건대 약오백여명이 증가되엿다 한다

이 처참한 걸인에 대하야 당국자의 구제책이 잇기를 일반은 고대한다하며 각지방별은다음과 갓다고 한다

▲醴泉四〇九 ▲東萊四六五 ▲榮州一八二 ▲金泉三〇四 ▲淸道二八六 ▲靑松一五三 ▲奉化一八七 ▲永川九六八 ▲高靈二四〇 ▲善山二五一 ▲聞慶一八〇 ▲慶州九一三 ▲星州三二〇 ▲安東二五六 ▲英陽 四〇 ▲尙州二五〇 ▲達城三〇〇 ▲義城三八六 ▲漆谷五〇二 ▲慶山五〇八 ▲迎日三〇八 ▲盈德一八五 ▲計七、九五四名

大邱府瓦斯工場基地 關係町民猛反對

陳情書까지提出決議

【大邱】 대구부영와사공장예정지(府營瓦斯工場豫定地)는 부지매수의 비용관계로 말미암아 대구부에서는 대구역(大邱驛)부근에 설치하기로 비밀리에 결정한것을 부민측에서 탐지하고 반대의 긔운이 농후하든바 점차로 반대의 소래가 구체화하야 지난 십칠일 부근정총대들이 모처에서 극비밀리에서 회한하야 좌긔의 각항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엿다하며 반대의사에 찬동하는 정민(町民)에게 반대진정서에 날인을 어더서 반대운동을 척저히 하기로작정하엿스므로 부당국과 지방민측의 항쟁은 당분간 계속되리라한다

決議事項

(1) 瓦斯工場을 驛附近의 人口稠密한 場所에 設置하는것은 大邱都市計劃을 無視한것

(2) 瓦斯탕크가、引火爆發하는 時는 大邱의 東部半分은 火焰에 包圍될것

(3) 危險한 工場을 敷用問題로 因하야 最初의 豫定地를 變更함은 府理事者의 常識을 疑心함

(4) 府當局의 施設計劃에 對하야 府民은 盲從치 안흘것

(5) 反對意見을 表明한側의 陳情書를 提出할것

麻雀賭博嫌疑 重役等檢擧

【大邱】 경북도내 모경찰서에서는 수일대로 돌연이 긴장한빗을띄고 련일 비밀회합을 거듭하든바 이십일일에 이르러 모회사(某會社)중역과 지방유력자 십여명을 인치하고 목하 엄중이취조중이라한다

사건의내용을 극비밀에 부치고 잇스므로 자세히 알수업스나 람문한바에의하면 전긔유력자들은 수십회나 마작도박(麻雀賭博)을 하엿다 부첫다고하며 검거자중에는 현직조선인모고등관(高等官)도관련된 사실이 판명되엿스므로 경찰에서는 감독관청의 지휘를 바다 불구속한채로 극비밀에 부치고 취조를 진행중이라는데 일반은 사건진전여하를 크게 주목한다하며 이긔회에 도경찰부에서는 도내각경찰서를 독려하야 마작도박을 일소할 방침이라한다

大田府初代議員 朝鮮人六名被選

【大田】 대전부초대 부회의원선거은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일부회의실에서 거행하얏는바 유권자 일천오백삼십이인중에 투표 총수가 일전상백구십팔표로서 입후보자중 녀명이락선되엿는데 조선사람당선자는 다음과가티엿다한다

金大爕 李白 [illegible] 方[illegible] 文仲重 [illegible]

冷害地長津郡에 農牛二千頭激減

營養不足으로斃死或은放賣

再次農耕無道의慘狀

【咸興】 함남 장진군에는 련산년 거듭 미증유의 흉작으로인하여 당금닥처온 혹한에 아사의위경에 직면하고잇는 이재민만 륙만여명의 다수에 달한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이제 더욱 일반으로 참혹케 녁이게하는 동군농가에서 유일한 운반경작의 로력을 제공하고잇는 축우(畜牛)가 이년간영양부족으로인하야 폐사(斃死)하거나혹은 식량을어더기위하야 생명가티역이는 축우를 방매하엿슴으로인하야 축우가 감한수가이천일백여두의 다수에 달한다는데 명년도에 또다시 농사를시작하래도 농우가업서서 하지못할참경에 빠저잇다고한다

前科四犯猶不足 又復窃盜타被逮

【木浦】 이제 나이 스물네살되는 전도양양한 젊은 사나이가 전과(前科)사범에 이제 또다시 절도삼십오건(三十五件)으로 붓들엿다는 근래 드기어려운 사실하나이잇나니 문석용 전부의산군왕궁면구덕리(全北益山郡王宮面九德里)에두고 처(妻)는 목포(木浦)에두고 현재 황금리(黃金町)에 거주하고잇는 류귀남(柳貴南)은 소화칠년 구월경에 사범채의 만긔출옥한후 이래 리리(裡里)중심으로 전남 전북등도로 횡행하면서 절도를 하여나오다가 메칠전에 리리경찰서 서원의손에 붓들려서 엄중한취조를 바든결과 출옥한후 이래의절도건수가 삼십오건으로 피해액이 천여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사를 알게되는동서에서는 여죄를 조사하기위하야 가일층 엄중한 취조를하는중이라고한다

對伊制裁惠澤으로 名產「平壤栗」洋行

米國에서注文이殺到하야 每石에一躍十圓昂騰

【平壤】 이태리를 침략국으로국제련맹에서 경제봉쇄를 하기때문에 미국에 대량수출을 하든 『밤(栗)』의 거래도 끈처지게되여 평양명산인 평양밤이 태평양을 건너미국에수출되게되엿다 이때문에 십원을 뛰여올나한석(石)에 오십칠원을 부르게되여 평양산의 밤은 날개가 돗치게 되엿다 한다

東倉浦의大恩人 故韓錫奎氏追悼

【東倉浦】 황해도 안악동창포면회의실에서는 지난십구일 오후네시에 안악지방의 대은인이고 한석규씨의 추도식이 거행되엿는데 고한씨는 칠십팔년전 신천군산천면 용동리에서 출생하야 의학(醫學)을연구하야 의생의면허를 어더가지고 사십여년을 하로가리 불상한사람을 무료로치료하여 주엇스며 따라사회에만은덕을세워 동창에유일한 긔관이엇든 사립배영학교설립자로 과거다수한일군을 길러주엇고 종교에독신하야 현재 백오십여명 모히는 동창리 예수교에 장노로잇스며 교회에속하여잇는 유치원을자긔의 재산을받처 유지케한 은인이라고한다

十一個漁組를團合 聯合會組織實現

咸南의多年懸案解決

【咸興】 함남도내 십일개 어조(漁組)를 일단으로하여 그독자의 리익옹호와 사무통제로 완전히 실행하기위하야 어조련합회(漁組聯合會)의 결성준비를수개월전부터 진행하여오든바 이번문제의 금조련합회(金組聯合會)와 차츰 천상만원의 체환(替換)도 거의락착을 지엇슴으로지난십오일 동회발긔인회의 명의로 함남도청경유 총독부에 인가신청을 제출하엿든바 느저도 금년말까지는 인가지령이 잇스리라는바 오래동안의 현안도이에 실현된모양이다

扶餘郡에大竊盜 八百餘圓盜難

【扶餘】 지난십일일밤십일시세시경에 부여군은산면은산리(恩山面恩山里)에 거주하는 포목상류상열(劉尙烈)상점에 도적이 침입하야 현금 팔백사십칠원이 들어잇는 수제금고를 도적하여갓다는데 피해자는 즉시소관부여경찰서에 고발하여왓슴으로 동서에서는 최사법주임(崔司法)이 김형사(金刑事)를 대동하고 현장에출장하야 조사한후 은산주재소원을 총동원하야 비상선을 느리고 혐안수색중인바 아직도 범인은 오리무중이라한다

沃溝郡에서 麥貯藏을奬勵

試驗結果好成績으로

【群山】 조선안에 잇서서 보리(麥)의 가격은 수확긔인 륙칠월경에는 매석에 불과 십원내외밧게 아니가던것이 파종긔에 이르러서는 십오원이상으로 오구군(沃溝郡)에서는 그실정에감

부여에뛰여드러 치마자락까지먹칠

장려로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順川郡"色奬"隊에不平

【順川】 평남순천에는 장날마다 군、면직원이 나와서 흰옷입은 사람에게는 검은물감을 헤가며 색의장려를 해오든바 지난장날인십구일에는 군、면、경(郡面警)등각관공서원이 합세로 색의장려대를 모아가지고 시장내외를 횡행하며 흰옷입고온 사람에게는 물론 상인(商人)과 연합회색이나 옥색의복을 입고온 사람에게까지 먹칠을하며 주의를 해치고 저고리에 칠하기 치마자락을 들치고 바지에 칠하기、작업장에 뛰여들어 일꾼들의 작업복에 칠하기 부억에 뛰여들어 부녀자들께 칠하기 등등의 가진 괴래를 연출 하엿다 는데 색칠함을 막으려다가 구타를 당한자도 잇다하며 흰옷입고온장꾼은 공포에싸혀서 장도 변변히 못보고 돌아가군하엿다는바 이러케 장려에 형식이아니고 강제적인 탈선적인 군당국의 처사에 일반의 원성이 점차로 높하간다고한다.

希望의가을도無色 살길업서縊首自殺

水原郡下農村哀話

【水原】 수원군 태장면동리(水原郡台章面東里)오십번지 김낙수(金樂洙)는 희망의 가을은 닥첫스나 사정업는 악독한 채귀들의 채무독촉에쫏달려 추수마당에서는 빈손을 도라서게되여 압날의 살어나갈길을생각다못하여 그만세상을 비관하고지난십륙일 오전네시경 가족이잠든틈을 타서 자긔의집 보에 목을매고무참히 죽어버렷다는데 듯는자로하여금 동정의눈물을 금치못하겟다고한다

經營難에빠젓든 中央幼稚園隣光

李貴興氏引受經營

【釜山】 십여성상의 긴력사를가진 부산중앙유치원(釜山中央幼稚園)은 그동안마농 관란과곡절이 잇섯스나 모든난관을 돌파하고 부산초량흥아회(草梁興亞會)에서 간부제씨의 열성으로 꾸준이경영하여오든바 지금은 원아륙십여명을 수용하야명실공이 중앙유치긔관으로 그존재를 중요시하게되엿는데 흥화회에서는 현재경영하고잇는 초량사립학교(草梁私立學校)와 녀자야학교의 개축문제에 전력을 동을 하고잇슴으로 유치원사업에까지 힘이 밋처지못하게되야 경영상 곤난을늣기고잇든중 초량영제의원장(草梁永濟醫院長)리귀흥(李貴興)씨의 특지로 동씨가인계하야 단독경영키로되여 지난십구일 오전십일시에 동유치원에서 사십여명의 부형과 흥화회간부 기타 유지의 참여하에 인계식을 거행하엿는데 전원장 김재준(金在俊)씨의 인계에관한 경과보고와 신원장 리귀흥(李貴興)씨의 인사가잇섯스며 부형대표로 정영모(鄭永謨)씨의 축사가잇슨후 유아들의환영유희와 환영사로 회긔에애리에 폐회하엿는데 일반은 씨의 미거에대하야 칭송을 마지안이하며 금후의 경영에 대하야는 씨의적극적 로력을 긔대한다고 한다

林巨正 (225)

火賊

洪碧初 作 安碩柱 畵

청석골 六의四

도록에 섭영이 적힌 도록과 줄게는 일백오십사명이나 덩고 바는 수효는 도록이 삼칠명、 줄게가 구십륙명、도합 일백십삼명밧게 되어니 되엇다 이때까지 다시오지아니한것들은 종내 오지아니한것이고 설혹 오더라도 바더두지아니한다고 적정이가 사람업는 빈섭영을 모다 꺽자치거 하얏다 서림이가 을 꺽자처나려가다가 흘제 붓을 멈추고 꺽정이의 안표한든 붓을 달래가지고 도록에 표적한 섭영구보시지요』

『김억석이는 아직좀 그대로두하고 꺽정이의 의향을 물엇다 『어듸로갓는지두 몰으는걸 두구봐 무어하우』

『사람이라두 내놔서 차저보는게 조치안흘까요』

『그럼 사십여명을 다차진데요 누군 찻구 누군 안찻소』

『김억석이는 담은놈들과 달으지안습니까』

『팔두령이 이에기햇슬적 어련하것소』

『평산봉사를 흥동에서 올리치려구 막상정이를 뵈보내는데 과상정이 데리구 도망질치는 모양으로 부자가치 가라구 서종사가 시킨것을 다알구잇거든이요』

『김억석이를 못찻는날이면 내가 갈치밧기엇겟구려』

『하는대루 내버려두면 벌서 서종사에게 시비를부트려 갓슬께요』

『이거 큰일낫군』

서림이와 배돌석이가 서로보며 우섯다 얼마압서가든 길막봉이와 황텬왕동이가 두사람의자미잇게 이야기하는 모양을 돌아다보고 돌이가치 돌아서면서길막봉이가 큰소리로

『여보 성님 서종사하구 무슨이에기를 그러케재미잇게하우』하고 물엇다

『너의들은 못들을이애기다』

『우리 못들을이애기가 무어람』

『못들을이애기라니 구지좀 들어야겟군』

『오 배두령의 가시아비라구차저야한단말이요』

『배두령의 장인두 데려다와우리청석골에 유공한사람이 아닙니까』

『차진때 찻드라두 담은놈들과 가티 꺽자처두우』

서림이가 꺽정이의말을 드듸어서 김억석이 섭영까지 꺽자처 버리엇다

여러두령이 도회령에서 각각 헤어저갈때 배돌석이가 서림이와 가티오다가

『그러지안허두 나는요새 집에서종러모살지경이요 제아비제동생을 차저달라구 사람을 오복전 졸르듯하우』하고 안해의 이야기를하얏다

『일부러 내보낸 니허를 이애기말구 가만내버려 두엇스면 몰래 도망한걸루 알구서 차저달란말두 못할것아니요 왜그런이애기를 했드리랍디까』

『저의 부녀가 다시만나게될때까지나는 이애기안할구 떠려두려구 햇섯는데 을 정넓초생인가보우 싱검쟁이 오주가놀려 왓다가 죄다 이애길해주엇소 오주간두에 나터러 미리 이애기 안햇다구 포달을 멸어서 내가 끈경을 당햇섯소』

『진자헤지루 팔두령더러 차저다가주라지요』

『우리집에서는 서종사더러 차저달란다구 별르구잇소』

길막봉이와 황텬왕동이가 쪼차저왓다

『무슨이에기들햇소』

『여적모의햇소』

『우리들 밤낫하는것이 다 여적모인데 또무슨 여적모이를 따루한단말이냐』

『대장을 틀어내자구하면 따루 여적모의가 되지안쏘』

『빈말이라두 큰일날말을 다한다 네가 광복산에서 호구명이 나구두 대장이 무서운줄을 몰으는구나』

『그런소리는 듯기두실소 고만두오』

『네가 먼저 듯기실흔말을 하지말지』

『글세 고만두어요』

황텬왕동이는 배돌석이아페서 돌아서고 길막봉이는 다시 먼저한말과 파가튼말로

『무슨이애기들햇소』하고 물으면서 배돌석이와 서림이를 번가려보앗다

『배두령이 장인과처남을 못차지면 내외간의초가 상하겟다구 나보구 사정이애기를 하신끄러요』

하고 서림이가 우슴의말로 말하얏더니 길막봉이는 그저 서림이더러 말하고 황텬왕동이는 바로서면서

『암 김패두는 차저야지요』

『사정이 무슨사정이요 치시스런거』

배돌석이를 핀잔주엇다

남모르게苦痛하는 無毛脫毛若禿의原因과 털을나게하는原理

田中醫學博士의成功

—說明書無代進呈—

眉毛、睫毛、髭毛、恥毛等의脫毛無毛部에 털이나게되는것은 그곳에各種毛機能을가지고잇는까닭입니다 卽毛根가잇고 그毛根는毛細管現象에잇서 血液中으로부터 營養的으로 營養을吸收하야毛髮을發生成育식힙니다 그래서 이毛髮成長機能에 障害又는營養補給을 停止식히면 毛髮을 依然히빠저서드물게되며 甚하면 全然버서지게됩니다 恰似히草木이日光과 肥料를주지안으면 말너죽는것갓습니다

前帝國大學敎授 田中醫學博士가 이點에着眼하여 前記와가튼 原理를 根本으로 털나는藥「후미나인」을 創製하엿습니다。 毛髮도 草木과가티 毛根部에草木에잇서 肥料와가튼 藥을주어 發生成育을 促進식히는것이랍 나는藥후미나인의 理論이며 實際입니다

털나는藥으로는 各種多數로 其中에는效力에 疑心되는것이업다고는 斷言못하나 「후미나인」이라는 毛生藥은 爲先第一推薦함에 躊躇치안습니다 무엇보다도 他藥보다 優越한點은 첫재로 田中醫學博士創製된것 第一에 皮膚病良藥テームス本舖로有名한 東京藥院의 發賣品인 優良한 藥인까닭입니다 近來內服毛生藥이發賣되나 效果에잇서 充分히알수업다고 富岡博士가 明言하엿습니다 禿頭、病若禿、毛根不良、圓形禿、睫禿薄眉毛、男女엇지못할곳에 털이업는분 毛不足으로 模樣이조치못하여煩悶하시는분들은 爲先「후미나인」을 推奬합니다 發賣元은 東京芝田村町四丁目東京藥院입니다『朝鮮日報』名記入申込하시는분에限하야詳細한 毛生藥의 說明書를無代進呈하기로되엿습니다。 振替東京三一八三二毛生藥「후미나인」藥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送料內地六錢、鮮滿十錢

毛生藥 후미나인 全國藥店에有

鮮產代表銘酒

優等入賞 ワカマツ 正宗

大邱府東門町 若松酒造場

當選謝禮

不肖等이今番創立된豊山殖產組合役員當選의榮譽를得하와玆에紙上으로써有志僉位의게感謝하나이다

慶北線豊山驛前 豊山殖產組合役員一同

京城鍾路パコダ公園正門越便

醫學博士 金東益內科

電話光二七五三番(夜中[illegible])

ブラザーミシン特約店募集

無音輕快 堅牢優美

型錄申込次第進呈

ブラザーミシン總代理店 コントロールミシン シンガー中古ミシン直輸入 部分品カタン絲卸商

大邱本町一丁目

日米ミシン商會

電話一五〇六番